

지역 소식통

고창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정읍시, 도라지 생산농가 FTA 신청

정읍시는 도라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도라지 생산자·단체로서,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직접 재배하고, 2016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지원 기준은 ㎡당 173원(추정금액)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으로 시는 올해 12월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산림조합, 명예조합장 위촉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은 제3기 명예조합장을 위촉하였다.

부안군 산림조합은 산림조합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5월 전국 최초로 제1기 명예조합장제도를 도입한 이후 좋은 호응을 얻어 제2기 명예조합장을 위촉하였고 지난 13일 제3기 명예조합장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오세준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산림조합이 금융의 영세한 점과 인지도가 부족한 부분들이 명예조합장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점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이번 3기 위촉식을 통해 제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가져

정읍시는 13일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함께하는 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정읍시'를 주제로 2017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양성 평등을 위한 시민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정읍시와 정읍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마상열)가 주최·주관한 행사는 1부 기념식, 양성 평등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 장학금 수여, 퍼포먼스 그리고 2부 북화술사 안재우씨 초청 힐링 콘서트 등으로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박우정 고창군수, 2018년 국가예산 사업비 1000억 확보 목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우정 고창군수가 2018년 국가예산 사업비 1,000억 확보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임 이후부터 지역 현안 해결과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힘써 온 박 군수는 지난 2015년 국가예산 477억원, 2016년에는 521억원, 2017년 국가예산 744억원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 국가예산을 확보했으며 특히, 2017년은 국책사업을 포함해 900여원을 돌파하며 광복행보를 펼쳐왔다.

박 군수와 고창군 전 공무원들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매해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국가재정운용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처예산에 고창군 현안 사업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연일 정부부처를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왔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요전 상류지역 지방하천정비사업(280억원) △구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95억원) △금령지구 재해예방시설 정비사업(85억원) △건동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199억원)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74억원) △노동지구수리시설 개보수사업(50억원) △금경사지 붕괴위험지구(교촌,읍성)정비사업(75억원) △산문천 생태하천복원사업(156억원) △철암전정비사업(190억원) 등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도 전례의 자연생태환경을 보유한 고창군의 미래발전과 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운곡습지 생태지구 체험조성사업(72억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신축(39억원) △운곡습지생태체험지구 및 에코촌 조성(97억원) △무장읍성관광거점조성(200억

원) △동림저수지 및 노동저수지생태문화탐방로조성(40억원) △고창갯벌생태계복원사업(70억원) 등을 확보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생태환경 도시를 완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박 군수는 내년도에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고창군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도 23호선 확포장공사 등 1000억원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연일 분주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지역현안 해결과 미래 고창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가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할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와 적극 대응으로 명실상부한 한국인의 분향,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군의 앞장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연상 부안 부군수, 직원들과 소통행정 펼쳐

이연상 부안 부군수가 취임과 동시에 김중규 부안군수가 2023 세계 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 해외 출장에 가면서 이 부군수는 행정 공백을 메우려고 직접 현안 사업을 챙기며 직원들과 소통행정을 통해 누수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부군수는 특히 1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난 7일 전북 국회의원과 도시군 간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부안군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건의했다.

또 13일에는 기재부를 방문, 국도 23호선 확포장(부안~고창 흥덕)공사 사업비 1,497억 중 18년도 사업비 40억 원과 부안에코테인먼트 조성사

업을 확보하려고 지난 7일 전북 국회의원과 도시군 간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부안군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건의했다.

또 13일에는 기재부를 방문, 국도 23호선 확포장(부안~고창 흥덕)공사 사업비 1,497억 중 18년도 사업비 40억 원과 부안에코테인먼트 조성사

업을 166억 중 18년도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이 부군수는 "소공동행정과 실패할 행정을 통해 주민이 행복하여 부안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며,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까지 전라북도내 물론 중앙부처와 가교 역할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내장사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호응'

다도 체험 · 호국성지 탐방 운영

내장사의 천년고찰 내장사(주지 도완 스님)에서 산사(山寺)를 활용한 고품격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내장사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주관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장사 '천년 선사들숨결 따라 이어온 다도체험과 호국성지 탐방(이하 다도체험과 호국성지 탐방)'을 운영하고 있다.

다도체험과 호국성지 탐방은 지난 4월 시작됐고, 10월까지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전통 자연 발효차 만들기과 차 문화 강의, 호국성지 탐방이다.

전통 자연 발효차 만들기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지역에서 생산된 자생차를 활용한 전통 자연 발효차 만들기 체험에는 약 500여명이 참가해 전통 제법법을 익혔다.

내장사는 체험행사 때 만든 차를 탐방객들에게 무료로 제공,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차 문화 강의는 10월까지 이어진다. 매주 토요일 주지스님이 직접 주관하는 차 명상 프로그램이다.

1개월 코스로 운영되는데, 수백년 전부터 산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다도 강화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무념무상의 명상을 통해 건전한 정신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신체

를 다지는 힐링체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호국성지 탐방도 10월까지 이어지는 데, 지역 내 초·중·고생이 대상이다.

각 학교와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을 잡아 운영하는데 조선왕조실록보존터인 용골 등의 호국성지를 탐방하면서 호국선열들의 얼을 기리고 호국문화재 의미를 되새긴다.

내장산은 임진왜란 당시 유일본이 된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을 이안하여 1년여 동안 온전하게 지켜냄으로써 역사 단절을 막아낸 호국성지로 평가받고 있다.

차 문화 강의와 호국성지 탐방 참여 희망자는 내장사(☎538-8741)에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씨 없는 수박 품평회 성료

대상 홍성관, 금상 김태건, 은상 임성열씨

제14회 정읍 단품미인 씨 없는 수박 품평회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품평회에는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 전라북도의회 이학수의원, 장학수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부인인 오경진 여사, 유성엽국회의원 부인인 나수영 여사를 비롯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과 농업인, 시민 등 모두 2000여명이 찾았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수박연구회(회장 이석변)가 주관한 이번 품평회에는 모두 48점의 수박이 출품됐다. 당도와 과형비, 무게, 과피 두께 등을 기준으로 실시한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은 홍성관(정우면)씨가 수상했다.

홍씨의 수박은 당도 13.8브릭스, 무게 10.3kg으로, 높은 당도와 일정한 과형 그리고, 수박 고유의 과피색 등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금상은 김태건(태인면), 은상 임성열(농소동), 동상 이용건(정우면)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품평회에는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 전라북도의회 이학수의원, 장학수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부인인 오경진 여사, 유성엽국회의원 부인인 나수영 여사를 비롯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과 농업인, 시민 등 모두 2000여명이 찾았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수박연구회(회장 이석변)가 주관한 이번 품평회에는 모두 48점의 수박이 출품됐다. 당도와 과형비, 무게, 과피 두께 등을 기준으로 실시한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은 홍성관(정우면)씨가 수상했다.

홍씨의 수박은 당도 13.8브릭스, 무게 10.3kg으로, 높은 당도와 일정한 과형 그리고, 수박 고유의 과피색 등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고인돌 유적지 진입로 재정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역 대표 관광 명소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지와 운곡습지를 보다 편하게 방문해 즐길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재정비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 청정한 생태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고인돌유적지와 운곡습지 진·출입로 620m에 12억 5000만원을 들여 은행나무와 팽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고 탐방열차 노선에는 양안 가로수를 식재해 터널형태로 꾸며 방문객들이 선사시대로 가는 분위기를 느끼고 청정한 경관 속에 편안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인돌유적지와 고인돌박물관, 선사체험마을, 운곡습지를 비롯

해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로 이어지는 길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고창군을 대표하는 명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

고창고인돌유적지는 아산면 죽림리를 중심으로 탁자식, 바둑판식 등 다양한 형태의 477기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으며 2000년 12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고창군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이 중 고창고인돌유적지와 운곡습지는 핵심지역으로 문화와 환경의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 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어울려 한방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잘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TEL : 063-594-8980
www.gansanwine.com